

“개성 강한 외모로 바람의 여신 됐어요”

영화 ‘바람 바람 바람’ 제니 역 이엘...신하균·송지효 등 호흡

“외강내유 캐릭터 저와 닮았고 여전사 역할 해보고 싶어요”

개성 강한 외모와 서구적인 몸매를 지닌 이엘(36)은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영화 ‘바람 바람 바람’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낸다.

그가 맡은 역할은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제니’다. 제니는 카사노바 석근(이성민)과 순진한 그의 매제 봉수(신하균), 그리고 봉수의 처(송지효) 앞에 나타나 세 사람의 삶을 예측불허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이엘은 화장기없는 수수한 모습이었다. 짙은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스킨트를 입은 제니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면서 제니처럼 술을 즐겼다.

“제니는 자기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내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캐릭터죠. 그런 면에서 저와 닮은 것 같아요.”

그 중 제니는 아픈 상처를 지닌 인물이지만, 순진한 유부남 봉수에 반해 그의 곁을 맴돌며 아슬아슬한 사랑을 이어간다. 당구, 테니스, 노래까지 잡기에 능한 인물로 나온다.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를 표방하는 ‘바람 바람 바람’에는 제법 높은 수위의 성적 코드가 등장한다. 영화 ‘황해’와 ‘내부자들’에서도 파격적인 노출신을 선보인 이엘은 ‘여배우로서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출로만 소비되는 역할이 아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쿨하게 답했다.

이엘은 이 작품에서 이성민, 신하균, 송지효 등과 호흡을 맞췄다. “24시간 촬영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이엘은 인터뷰 중간에도 양해를 구한 뒤 이성민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성민 선배님이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또 우리 영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대요. ㅎㅎ.”

이엘은 2009년 드라마 ‘잘했군 잘했어’로 데뷔한 뒤 그동안 ‘도깨비’ ‘화유기’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짧지만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렌스젠더나 삼신할머니, 요괴 등이 그가 맡은 역할이다. 개성 강한 외모가 한몫했다.

“처음 배우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얼굴은 단점이었어요. 매력을 느끼는 분이 많지 않았죠. 매력을 느꼈더라도 카메라로 어떻게 찍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개성으로 봐주시니까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엘이 연기자의 길로 들어선 건 우연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이엘은 “특별한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연기학원에 다녔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학창시절에는 낯을 많이 가리고 웃기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저만의 세계가 있었고, 친구도 별로 없어 혼자 다니다시피 했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학교에 다녔고, 성적도 중간 정도였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나 재미를 못 느껴 중퇴를 결정했고, 통보했어요. 만약 그때 고등학교 3년을 그냥 흘러보냈다면 지금의 이엘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엘은 결혼관도 스스로 밝힌다. 그는 “제가 스스로 책임지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면서 “제 생각을 뒤엎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독신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엘은 현재 연극 ‘아마데우스’에 출연 중이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툼 레이다’나 ‘레지던트 이블’처럼 여전사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웃었다. /연합뉴스



‘부잣집 아들’ 첫방 12% 순조로운 출발

‘같이 살래요’ 26.7%로 1위

MBC TV 새 일요드라마 ‘부잣집 아들’이 5.1%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2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45분부터 2회(PCM 포함 4회) 연속 방송한 MBC TV ‘부잣집 아들’의 시청률은 5.1%-12.0%, 9.5%-10.5%를 기록하며 방송 첫날부터 10%를 넘겼다.

전작인 ‘밥상 차리는 남자’의 첫회 시청률은 8.6%, 마지막회 시청률은 18.4%였다. ‘부잣집 아들’ 첫회에서는 이광재(김지훈 분)가 옛 연인인 김영하(김주현)를 잊지 못한 모습이 담겼으며, 각 집안의 이야기

도 소개됐다.

드라마는 청춘 로맨스부터 집안마다 다른 지식 사냥법, 코미디 등 다양한 요소를 담으면서 볼거리가 풍성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밖에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배우 이승연과 22년 만에 가수 주현미가 부른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도 눈길을 끌었다.

25일 주말극 시청률 1위는 26.7%를 기록한 KBS 2TV ‘같이 살래요’가 차지했다.

케이블채널에서는 tvN ‘라이프’가 5.1%(이하 유료가구)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 4회 만에 5%를 넘었다. OCN ‘작은 신의 아이들’은 3.3%,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는 2.634%였다. /연합뉴스

“17년만에 부부로 다시 만났어요”

설경구·전도연 영화 ‘생일’ 출연

설경구와 전도연이 영화 ‘생일’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26일 배급사 뉴에 따르면 ‘생일’(가제)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함께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이후 스크린에서 재회한 설경구와 전도연은 서로 다른 상처와 슬픔을 지닌 부부로 등장한다.

설경구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족 곁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정일 역을, 전도연은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마트



에서 일하며 묵묵히 생계를 꾸려가는 순남역을 맡았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 ‘시’에서 연출부로 활동한 이종언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다음달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행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명견만리(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허룻방만 재워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25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잉크로 MBC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재)
1	20 역사저널 그날(재)	00 1대 100(재)	2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닥터 365
2	10 박원숙의 같이 삼시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0 꾸러기 식사고실 4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10 미래기획 2030 (철의 미래 2부작)(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프리파라 3 40 령강소 1. 2. 3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00 여유만만(재) 55 재보자들(재)	35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자유한국당) 55 뉴스콘서트	00 고강권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불교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 24 55 특선영화 (특별시민)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10	35 슈퍼 40 KBS 뉴스라인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허룻방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 30 독립영화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다이아리 25 UHD다큐멘터리 3부작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2부 화춘양재, 돈가스와 스모)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단종박 꽃게탕과 오징어젓 무침)	15:15 파프리카	19:50 극한직업 스페셜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25 그림 그려줘 무이	20:40 세계테마기행 <심장이 쎄다, 페루 2부 사막에서 밀림까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점오 뉴스 (청소노동 배틀)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여기는 처음이지요 2부 속리산 하늘 아래>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점오 뉴스 (청소노동 배틀)	16:00 낚장고 나라, 코코몽	21:50 EBS 다큐프라임 <900개의 영혼, 파푸아뉴기니>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3:00 다큐 오늘 (말에 대해 말하자면)	16:15 올강한 소방차 레이	22:45 우리란 이란가
07:45 출동! 슈퍼웬스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6:45 덩동랑 유치원1~2(재)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00 덩동랑 유치원1~2	13:40 성난 물고기(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4:45 지식채널e
08:30 플라워링 하트	14: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재)	17:30 마사와 곰	24:50 다큐 시네마 (사람이 산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7:45 띠띠뽀 띠띠뽀	
09:00 몬카트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음 2월 11일 戊午)

<p>子 48년생 혁신적인 개성이 필요한 때이다. 60년생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72년생 진퇴양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 84년생 인정 했을 때 개성의 여지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1, 54</p>	<p>午 42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54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6년생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다. 78년생 핵심적인 원리만 파악한다면 쉽게 가다가 잡힐 것이다. 90년생 행편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이 맞다. 행운의 숫자 : 09, 74</p>
<p>丑 49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하자. 61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73년생 처음에 승세를 잡지 않으면 끝날수록 힘들어진다. 85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알려주지 무언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2, 72</p>	<p>未 43년생 이번이 예상된다. 55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67년생 폭넓은 인식은 필요로 삶은 이끄는 요체이다. 79년생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91년생 부추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 행운의 숫자 : 78, 46</p>
<p>寅 50년생 봉수에 맞지 않는다면 욕심내서는 아니 된다. 62년생 상황이 바뀌면서 대세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된다. 74년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86년생 팔 심인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9, 89</p>	<p>申 44년생 모두 해야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6년생 시러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68년생 선택을 잘 한다면 실리를 취하게 되는 본원이 된다. 80년생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4, 27</p>
<p>卯 51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63년생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75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87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국량이니라. 행운의 숫자 : 68, 71</p>	<p>酉 45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57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69년생 드디어 가장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81년생 뜻밖의 일에 관련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75</p>
<p>辰 52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띠게 되느니라. 64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과 관계하리라. 76년생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88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되면서 지루하리라. 행운의 숫자 : 92, 06</p>	<p>戌 46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58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대처할 수 있다. 82년생 오름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라. 행운의 숫자 : 79, 30</p>
<p>巳 53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점을 이룬다. 65년생 사소한 것은 처치하고 핵심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실속 있다. 77년생 약점을 보완한다면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89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딪감도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3, 29</p>	<p>亥 47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59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중대사가 전개되리라. 71년생 오무룩이었던 것이 운과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83년생 축적 해 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7, 0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